

참고 보충 자료

## 1단원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

### ①핀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크리스마스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므로 무더운 기후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를 형성했다. 해변에서 일광욕과 피서를 즐기거나 도로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축제를 개최한다. 위도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벌어지는 현상에 따라 각 나라의 문화 또한 차이를 두고 형성한 점을 소개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름 크리스마스는 야외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레저 스포츠, 휴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적인 분위기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이와 다르게 북반구에 위치한 핀란드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이 낮은 기후이다. 눈이 내리거나 한겨울의 낮은 기온인 날씨를 고려하여 주로 실내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크리스마스에만 특별히 먹는 음식이나 여가 생활과 같은 문화가 낮은 기후를 고려하여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이미지, 전통적인 요소들은 겨울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 1년 중 특별한 하루를 상징하게 되었다.

### ②왜 나라마다 시간이 다를까? - 경도에 따른 지역 간 시간 차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으로 열리는 경기는 중계되는 시간이 나라마다 다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그 예이며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시간이 달라 한낮의 브라질에서 개최된 경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방영되었다. 이처럼 시간이 다른 이유를 과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한낮일 때 반대편의 나라들은 밤이 된다. 그렇다면 지역에 따른 시간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 정해졌을까? 세계지도나 지구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로선과 세로선이 그어져 있다. 이때, 가로선은 위선이라 부른다.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각도인 위도를 나타내었다. 세로선은 경선이라고 칭하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동서로 떨어진 각도인 경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도상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개의 선을 사용하여 위도와 경도로 표시한다. 위도와 경도 중 각 지역의 시간을 정할 때 알아야 할 것은 경도이다. 오늘과 같은 국제적인 표준시간이 없었던 1800년대까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역마다 다른 시간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부터 발생한 어려움으로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시간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껴 국제 표준시간을 지정했다. 1884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자오선 회의를 통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 자오선(경도 0°선)으로 인정되었다. 각 나라의 표준시와 표준시간대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서 경선인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2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정했다. 즉,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 자전하므로 1시간에 15° 정도 이동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24개의 표준시간대를 정했다. 다만 표준시간대가 도시 한복판이나 나라의 가운데를 통과하면 한 나라의 시간이 달라져 구불구불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오차를 반영하지 못하여 세슘 원자의 진동을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협정세계시를 사용하기

도 한다.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https://if-blog.tistory.com/5912>)

### ③지리적 관점에 따른 글로벌화(사례 제시?)

지리적인 복합체들이 작동하는 양상은 매우 복잡하며 다차원적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지리학자들은 공간스케일을 인식하고 분석한다. 공간스케일은 사회적인 관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문제 설정이다.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주화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즉,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범주를 만들어 차별화를 시도한다. 지리적 관점은 글로벌화라는 현상을 지리적인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접근법이다. 어느 장소를 두고 그 장소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의미들, 경관,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지리적 이해는 현상 자체를 거시적인 구도뿐만이 아니라 미시적인 차원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소의 의미를 불변하는 경계 내부와 외부의 상황으로 두지 않고, 장소를 서로 얽혀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즉, 장소는 하나의 과정이 되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영향력 사이에 활발한 교섭 관계가 발생한다.

출처: 남호엽, 「지리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화의 의미」, 『글로벌교육연구』 제4집 2호